

외환리포트

전일동향	전일대비 4.20원 상승한 1,402.90원에 마감
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30일 환율은 오후 3시 30분 기준 전일대비 4.20원 상승한 1,402.90원에 마감했다.

이날 환율은 NDF 증가를 반영해 전 거래일 대비 1.30원 상승한 1,400.00원에 개장했다. 월말 네고 물량에도 환율은 상승세를 보였다. 오후 장에서 환율은 1,405.40원에서 고점을 찍은 후 상승폭을 일부 반납하며, 1,402.90원에 종가(15:30 기준)를 기록했다. 주 간장중 변동 폭은 6.10원이었다.

한편, 이날 외환시장 마감시점의 엔-원 재정환율은 946.81원이다.

전일 달러 변동	시가	고가	저가	종가 (15:30)	평균환율 (매매기준율)
	1400.00	1405.40	1399.30	1402.90	1403.20

전일 엔화 변동	시가	고가	저가	종가
	940.86	950.57	936.15	948.46

전일 유로화 변동	시가	고가	저가	종가
	1639.83	1650.80	1639.27	1646.02

F/X(달러-원) 스왑포인트		1M	3M	6M	12M
	보장환율(수출)	-2.06	-6.88	-12.88	-24.54
	결제환율(수입)	-1.65	-5.65	-10.92	-21.09
	* 전일자 청약고객이 수취한 스왑포인트로 당일자 청약시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 * 해당월 말일(영업일)까지의 스왑포인트 기준 * 자세한 사항은 환위험관리 지원센터 홈페이지(https://www.ksure.or.kr/rh-fx/index.do)에서 확인가능				

금일 전망	美 섀다운 압박에...1,400원대 초반 중심 등락 전망
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NDF에서 환율은 스왑포인트(-2.10)를 고려하여 전 거래일 현물환 종가(1,402.90) 대비 0.70원 상승한 1,401.50원에서 최종호가 됐다.

금일 환율은 미국 연방정부 섀다운 압박 및 소비심리 부진에 하락 압력이 소폭 우세할 것으로 예상된다.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 예산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며, 섀다운을 겪게 될 것이라고 발언했다. 1일 자정(한국시간 13시)까지 예산 통과가 안될 경우, 연방 정부는 업무 정지에 돌입하게 된다. 한편 미국 9월 소비자신뢰지수는 94.2로 5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으며, 예상치(96.0) 및 전월치(97.8)를 모두 하회했다. 미국 8월 구인건수는 722.7만건으로 예상치(720만) 및 전월치(702.8만)를 상회했다. 달러인덱스는 연방정부 섀다운 가능성에 0.13 하락한 97.82를 기록했다. 금일 환율은 섀다운 우려 및 소비심리 부진 등에 따른 달러 약세에 하

락할 것으로 예상된다. 아울러 뉴욕증시 상승 마감에 따른 투심 회복에 국내증시 외인 자금 유입 가능성이 농후하며, 이는 환율 하락의 재료로 소화될 것으로 판단된다.

다만, 수입업체 결제 등 실수요에 하단은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.

금일 달러/원 예상 범위	1397.60 ~ 1407.60 원
체크포인트	■ 전일 외국인 주식 매매 동향 : +230.11 억원
	■ 뉴욕 차액결제선물환율(NDF) : 전일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대비 0.70원 ↑
	■ 美 다우지수 : 46397.89, +81.82p(+0.18%)
	■ 전일 현물환 거래량(종합) : 126.2 억달러
	■ 전일 외국인 채권매매 동향 : +28031 억원

주의사항

※본 리포트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외부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자료를 인용한 것입니다.

※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